



쉽지 않은 이민 생활에서 가끔씩은 좋은 일로 또는 안좋은  
상황으로 변호사님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.  
그럴 때 마다 걱정 보다는 전화기를 들고 황보 변호사님의  
번호를 누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.  
친절하시면서도, 정확한 방향제시를 해 주시고 빠른 진행과  
승인까지 신속하게 해결을 해 주실 때 마다 모든 일이  
순조로왔습니다.  
지난 6년간 변호사님이 제공해 주신 모든 법률 업무에 만족  
하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추천합니다.  
늘 좋은 일과 함께 하세요.  
김 미애 드림.